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41.85 (-22.15)	670.94 (-6.21)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603 (-0.023)	1414.45 (+4.35)

최상목 부총리
"10조 증안펀드 가동
내수회복 전념"
02



尹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 후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사진)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에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계엄 주도' 김용현, 사의 표명
면직으로 야 '탄핵안' 무력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날(4일)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안질의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게 된다.

당초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 의무가 사라졌고,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주장하며 전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무력화됐다.

한편 정진석 실장은 인사 발표만 마친 후 별도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예진기자 syj@

m-커버스토리

미래금융 핵심 경쟁력 '생성형AI' 고도화

금융권 '디지털 전환'

신한은행 'AI와 사람 공존' 콘셉트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 선보여
우리은행,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
농협은행, AI로 기업여신심사 강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본사 전경. /각사

은행권도 정보기술(IT)부문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은행들은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업무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미래 AI금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시중은행들은 혁신과 조직 개편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AI 관련 부서를 신설해 기존 금융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 중이다. 디지털 혁신에 방점을 찍고 생성형AI를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 'AI와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오픈해 디지털 혁신

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AI 은행원'이 고객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AI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출 상담, 기업 업무까지 AI 행원의 업무가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생성형 AI 기반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AI뱅크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업여신 심사 자동화 시스템, 대안신용평가 모델, 금융시장 분석(Deep Sensing) 등 은행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NH농협은행은 빅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신(新)기업여신 전략시스템을 오픈했고, KB국민은행은 마이크

로소프트(MS)와 함께 '애저 오픈 AI(AOAI)'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처리에 활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꺾고 있는 은행들은 세계 최대 가전 IT박람회인 CES로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CES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기업 대부분 AI를 적용한 기술·제품 등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내년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단독 부스를 연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세 번째로 AI은행원과 신한홈뱅크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도 첫 단독 부스를 연다. IBK관을 마련해 AI를 활용한 미래성장모형 등을 시연할 예정으로 첫

단독 부스 전시에 나서는 만큼 김성태 행장도 전시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주요 은행 주주사도 CES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산업에도 최신 IT 기술이 필수가 된 만큼 향후 금융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성형AI 서비스는 은행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은행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점차나제품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생성형 AI를 누가 더 고도화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中, 對美 흑연 수출 통제 국내 배터리업계 초긴장

이차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
韓, 對中 의존도 93.7% 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흑연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사안에 따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반발해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자국의 광물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장비 제

조에 쓰이는 희소금속의 대미수출을 금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흑연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최종 사용자 용도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 대미국 수출이나 미국 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재료다. 중국은 천연·인조흑연에 걸쳐 세계 음극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특정 수출을 불허하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경우,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부터 음극재를 조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생각에 잠긴 한동훈·추경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에서 구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을 목표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재 천연흑연 제품 원료는 아직 거의 전량 중국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탈중국 음극재 공급망은 아프리카산 흑연 도입·가공 체

계가 완결되는 2027년쯤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은 2억 4100만 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 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를 중국에서 들여왔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계엄설 주장' 김민석 "윤, 2차 계엄 시도 100% 있다" /사진 뉴시스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사실,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어"

▲ "찰떡같이 어울린다"...尹 계엄 사태에 '합성 풍자' 잇따라
▲ "쿠데타 세력들 자리에 있어... 이번 주말 고비" 김중태 전 의원



▲ 이상민 "尹 내란죄 수괴라 생각 안 해... 헌법 규정된 권한 행사한 것" /사진 뉴시스
▲ 북한, 비상계엄·尹 탄핵 추진 보도 양고 무반응

“10조 증안펀드 가동… 내수회복 위해 연말행사 등 진행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시장상황 예의주시, 상황별 대응
40조 규모 채안펀드 가동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 기금 펀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민간이 평소대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일 평정심을 잃지 말고 내수 회복에 전념하자는 지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시장안정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증안펀드란 주식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우려될 시 국책은행 등의 기금을 출연을 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수목적의 펀드를 일컫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회의 참석자

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국내 상황이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려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

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까지 경제·금융상황 점검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회의 직후 정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즉시 가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자금시장에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국은행에서는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시 국고채와 외화 RP 매입으로 외화유동성 공급을 맡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상대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안도 발표했다. 계엄 선포·해제를 둘러싼 일련의 정치적 사태와는 별도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 달라”며 “모두가 최대한 평소처럼 하는 것이 결국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의 경영여로 인정 요건은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대출 자금도 올해 중 2000억 원가량 추가로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기보형 전환 보증도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韓 탄핵정국, 성장률 등 경제영향 제한적”

이창용 한은 총재
“정치·경제적 프로세스 분리 될 듯
1400원대 원·달러 환율 내릴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두 번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왔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재임 시기)을 보면 금융시장에는 단기적 영향도 이번보다 적었고, 장기적 영향도 적었다. 성장률을 비롯한 한국 경제 상황에는 (탄핵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5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는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줬다. 지난 3일 1444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 1412.4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이 총재는 “과거 (탄핵 정국) 경험을 봤을 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



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리적인 영향은 클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약간 오른 상태”라며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사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려 (비상계엄 선포 뒤) 6시간만에 프로세스가 운영돼 해제되고, 큰 충돌 없이 해결됐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이는 기회가 됐고, 이후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amp;포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 단기 외화 원화등급은 A-1+로 평가하고 있다.

앤디 리우 S&P전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정도는 아니다”며 “오랫동안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내부 위험보다 외부 위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새정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정책 등) 바뀔 지 수출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출 부진… 3분기 GDP 성장률 0.1% 그쳐

한은,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
수출 0.2% 줄고 수입 1.6%p 늘어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B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나유리 기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소폭 상승

총수 지분율 24.7%, 일가 47.7%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계열사 간접 출자가 늘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43개 전환집단 중 9월 기준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 41곳이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 보유 평균 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인 4.4단계보다 적다. 이는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수평형·방

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결과로, 전환집단이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주회사 등의 해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증가한 32건이다. 또 지주회사 체제밖에서 지배하는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터리 3사, 인조흑연 생산규모 확대 추진

>> 1면 ‘中, 對美 흑연…’서 계속

중국이 특정 미국 기업을 찍어 흑연 수출을 금지하면 해당 기업을 고객사로 둔 한국 기업은 이차전지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흑연 조달이 불안해질 경우 음극재 확보 문제로 국내 기업들의 이차전지 생산 규모,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이차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만큼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핵심 광물 공급처의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인조흑연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의 생산 규모를 연내 1만 8000톤까지 확대하고 2026년에는 5만 8000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천연흑연은 2026년 15만 4000톤, 2030년 18만 2000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로 흑연 도입선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천연흑연 기반 음극재의 경우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중국의 발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래형 점포’ 사업 본격 추진… 쇼핑·문화향유 공간 혁신

정용진의 emart, 생존전략

(下) 고객 중심 매장 전환

체험공간 등 오프라인 강점 극대화
전문점·입점업체 비중 대폭 확대
업계 “유통시장 변화 가져올 것”

‘정용진 호(號)’의 이마트가 공급망 관리(SCM)를 통해 비용 효율화 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함께 꺼내 든 카드는 ‘미래형 점포’를 통한 소비 시장 공략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 공간을 확대하는 미래형 점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제시하는 미래형 점포는 기존 전통적인 대형마트의 틀을 넘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쇼핑물 형태의 매장을 의미한다. 이는 오프라인 공간을 혁신해 소비자 유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경험 경제’라는 개념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경험 경제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천 연수구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고객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고객 경험 관리(CEM) 시장 규모는 오는 2032년 약 702억 달러(약 9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의 미래형 점포 역시 이러한 경험 경제 트렌드에 맞춰 기존 마트 공간에 고객 체험 공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기존 마트를 리뉴얼하면서 마트 공간을 축소하는 대신, 고객 체험 공간과 입점

업체(테넌트)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리뉴얼을 마친 이마트 연수점은 기존 3800평 규모였던 마트 공간을 1600평으로 줄이는 대신, 전문점 및 입점 업체 공간을 1800평에서 3500평으로 확대했다.

당시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강점인 그로서리와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이 머물고 싶은 매장으로 혁신하고자 했다”며 “장보기는 물론, 먹고 즐기며 트렌디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래형 이마트로 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점포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재단장을 마친 이마트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이 대표적인 예다. 기존 마트와 함께 북그라운드, 팝업 매장을 통합적으로 선보이며 미래형 점포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23년 운영을 종료한 이마트 성수점은 오는 2027년 새로운 미래형 점포로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마트의 이 같은 전략은 소비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마트에 따르면 스타필드마켓 죽전점은 개점 후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방문 고객 수가 47% 증가했다. 매출 역시 오픈 직후 32일간 지난해 대비 46%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통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분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앞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동일 업종 간 경쟁이라는 전통적인 시장 정의를 넘어, 시장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비 경제가 상품이 아닌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넘어 혁신적인 고안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부 김 모 씨는 “요즘은 복합 쇼핑물과 마트가 함께 어우러진 곳들이 많다”며 “꼭 이마트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 같은 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마트라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비슷한 콘텐츠와 문화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관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엔 마트에 꼭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품 판매에만 의존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 성장 전략을 떠나서 소비자 경험 확대 전략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과제는 이제 오프라인 마트들에게 숙명이다”라고 말했다.

또 “주변 입점 업체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소비자 선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oul.co.kr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공식 참여 럭셔리 넘어 고성능 브랜드 ‘질주’

모터스포츠 프리미어 행사 개최 ‘GMR-001 하이퍼카’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모터스포츠 진출로 브랜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현대차가 양산차 기반 ‘월드랠리 챔피언십’(WRC)에서 우승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처럼 제네시스도 모터스포츠 진출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내놓으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어 럭셔리 넘어 고성능 브랜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시스는 4일(현지시간) UAE 두바이에 위치한 아르마니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현대모터스포츠법인 시릴 아비테탈 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하고, 모터스포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내구레이스 중심의 모터스포츠 참가 계획을 발표하고,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을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만의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제성을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의 디자인도 첫 선을 보였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의 모터스포츠 진출은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 중 하나”라며 “매 순간 한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 야외 전시장에서 열린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프리미어’ 행사에서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모터스포츠는 우리에게 하이퍼스피드 정신을 가지게 해주면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를 추구하는 제네시스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앞으로 함께 그려 나갈 미래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2026년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 2027년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 등 양대 내구 레이스 선수권에 각각 차량 2대로 참가해, 우수한 고성능 차량 개발 기술력을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최고 등급 하이퍼카 클래스인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LMDh)’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출전할 예정이다.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는 FIA와 IMSA가 공동으로 만든 레이스카 제작 규정으로, 해당 차량은 WEC와 WTSCC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제네시스는 LMDh 기반의 프로토타입 제작 시 세계적인 레이스카 제조사 오레카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차량 제작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도 함께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소속 드라이버 안드레 로테러와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를 소개했다. 안드레 로테러는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에서 총 84회 우승과 166회 포디움에 올라간 이력이 있으며,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는 2016년 데이토나 24시, 세브링 12시 대회를 동시에 석권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제네시스는 2026년 WEC 본격 진출에 앞서 세계적인 레이싱팀 IDEC 스포츠와 협업체 2025년 유러피안 르망 시리즈 LMP2에 시범 출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정치 테마주 급부상… 상한가-급락 혼조

증시, 대통령 비상계엄 파장 지속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여파가 국내 증시에 연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밸류업 관련주’는 떨어지고 정치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락을 기록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증시 변동성을 높이는 중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TOP10 지수’는 전일보다 4.74%나 하락하며 장중 1478.29에 거래됐다. 특히 금융 대장주인 KB금융은 전일 대비 9.64%나 하락하며 8만62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대로 정치인 테마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전일에는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계엄령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탄핵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 테마주 흐름도 엇갈린 모습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테마주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5일 오후 2시 47분 기준 동신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9.83%(8100원) 오른 3만5250원에 거래됐다. 동신건설의 본사는 이 대표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 이재명 테마주로 불린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에이텍도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날도 전일 대비 5080원(27.06%) 상승하며 2만3850원에 거래됐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성남 창조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

던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급락 중이다.

한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대상홀딩스는 전일 대비 12.07%(1310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 해제 당일 주가는 2500원이나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이지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대상홀딩스의 경우는 배우 이정재와 한 대표가 친구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2대주주라는 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덕성도 이날 전일 대비 1120원(-14.95%) 하락했는데, 덕성의 경우는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정책·정치 테마주에는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증권가는 정치 테마주로 인한 변동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달리 국내 증시는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다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주식, 채권, 외환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속성도 길지 않고, 금융시장 가격 변화를 만들어낸 본질적인 요인들은 증시 펀더멘탈, 매크로에 좌우된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10년 늦춰진 금융산업, AI·클라우드를 디지털 혁명 시작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지난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금융사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망분리 규제는 무려 10년 넘게 금융사의 업무 비효율을 키우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금융 상품 출시를 기대하고 있다.

◆ '갈라파고스 규제' 금융사 망분리 풀린다

금융사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망분리는 지난 20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사고를 계기로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운영되어 왔다.

다른 산업군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가 금융권에서만 사용할 수 없었다. 10년간 금융사의 업무 비효율을 키운 것이다.

금융위,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샌드박스 활용 AI·클라우드 규제 완화 SaaS 적용 영역 확대에 혁신 예고 디지털금융보안법, 자율보안 확립

망분리 규제란 금융사가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누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 적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두 대 사용)하거나, 가상화 기술 등을 사용해 구분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개막했고 인공지능(AI)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망분리 체계는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망분리 규제완화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급격한 IT 환경 변화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PCI-DSS와 국내 망분리 접근방식 비교

	PCI-DSS	한국
망분리 개념	망세분화(network segmentation)	내부망과 외부망 차단
망분리 목적	관리비용 절감 & 기술적 전문화	사고발생 방지
망분리 방식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모두 가능	물리적 망분리
보호대상	핵심정보	내부정보

주요국가 망분리 규제방식 비교

	규제원칙	재량권 수준	금융회사의 책임성
한국	망분리의 의무 부과 - 금융회사의 책임인식 저조	낮음(망분리 방식 지정)	- 낮은 수준의 과징금·과태료
미국	- 네트워크 구분·접근통제를 통한 보안 확보 - 금융회사의 책임성	높음(망분리 방식 선택)	- 규제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한 사후규제 금전적 제재 중심
유럽	- 정보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보장 -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 요구	높음(망분리 방식 선택)	- 엄중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사후규제
호주	- 다층화된 정보보안 통제 장치의 마련 -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조	높음(망분리 방식 선택)	- 다양한 사후규제 적용 - 벌금,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의 제재

자료/자본시장연구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뉴스1

대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문서관리 등 기존 범위를 넘어 SaaS 적용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운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의 금융권 도입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 때문에 그동안 생성형 AI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2단계 샌드박스로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로 넓히는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샌드

박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금융보안 체계의 선진화도 추진한다. 가칭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디지털 기술 없이는 금융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해외사례 참고해 보안강화 필수

금융전산과 관련된 보안확보는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명문화된 의무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식을 따른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발생 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사후규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지난 2016년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9년 페이스

북(Facebook)에 50억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50억달러는 페이스북의 이전 회계연도 매출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캐피털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 처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1억5000만달러(약 2089억원)를 지불했다. 미국의 전산보안에 대한 사후규제가 얼마나 강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럽의 망분리 규제 역시 미국과 유사하다.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및 보안 리스크 관리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금융회사가 판단해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후규제는 기업이 정보보안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0만유로와 기업 전체 매출의 4%중에서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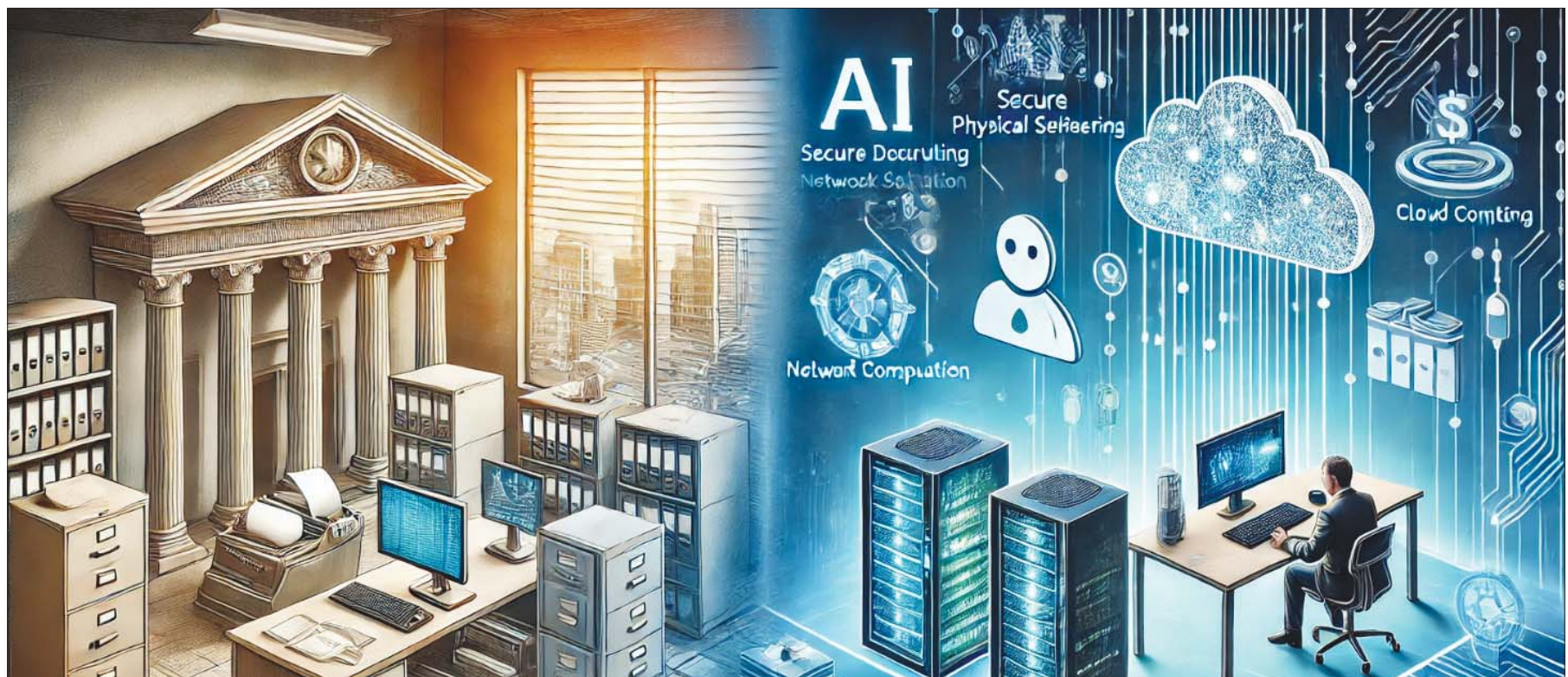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 금융사 자율규제 강화 韓, 해외사례 참고 보안 규제 개선 보안 대책 강화 등으로 안전성 확보 단계적 규제 완화 통해 경쟁력 제고

해외의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망분리 규제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지만 보안책임은 무겁게 묻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금융당국 역시 해외 망분리 사례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비교 분석해 '데이터 금융 보안법'(가칭) 제정 후 '원칙' 중심의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5일 "금융회사는 대규모 보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 비용증가가 수반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안리스크 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보안 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 사고발생 시에는 금융회사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금융 산업의 디지털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딛고, 비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든 도전과 꿈이, 가능성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AI 반도체부터
에너지 솔루션까지

SK가
미래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길이 되겠습니다

SK



INDUSTRIAL SUSTAINABILITY
DIGITAL PLATFORM
GREEN TECHNOLOGY
ENERGY TRANSITION
CARBON MGMT
ADVANCED MATERIALS
INDUSTRIAL TRANSITION
SMR HYDROGEN-COND
AI SERVICE PLATFORM
BIO·AI·BATTERY
ENERGY SOLUTION HARVEST
FUTURE

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 與 보이콧 대비

내일 오후 7시 탄핵안 일정 예정
與 본회의 불참 시 김건희 특검 통과
탄핵안 가결에 최소 이탈 8표 필요
국민의힘 '소장파' 5인, 尹 사과 요구
민주당, 국회 뒀 현재 재판관 추천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야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진'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법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현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현재는 3명이 공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뒀 현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비상계엄' 국무회의 졸속 심의? 최소 3명은 개최 사실도 몰랐다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등 7명 참석
국무위원 중 최소 4명 추가 참석 추정
환경·고용·교육부장관, 연락 못 받아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졸속으로 심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대변인실을 통해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계엄을 반대했다. 조태열 장관과 김영호 장관도 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계엄을 제안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계엄 선포시 경찰력이 투입된 만큼 사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회의에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심의하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식 확인해준 곳은 송미령 장관과 조규홍 장관 2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목 장관의 경우도 회의에서 환율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최소 3명은 사전 국무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장관은 당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송년만찬 후 9시 40분께 자리를 떠나 세종 관사에

머물다. 계엄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과 이주호 장관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해 사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계엄 해제 심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종 일정으로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사후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 등 5명 중에서도 사전 회의 참석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나 해제 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9명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회의 참석 여부가 오리무중인 국무위원 중 최소 4명이 추가로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란죄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박안수 "계엄사실, 담화 보고 알았다"

(계엄사령관)

국방위-행안위 현안질의
국회에 무장군 투입 명령 안 해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다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나"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을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보험업계 최대 격전지 ‘보장성 보험’... 상품 차별화가 해답

내년도 ‘제3보험’ 경쟁 격화 전망
생·손보사, 보장성보험 판매집중
CSM 확보의 핵심상품으로 부각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관건



첫 지피티가 생성한 상품 경쟁력 관련 이미지. /첫 지피티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품 경쟁력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신계약의 향방이 상품 차별화를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에서 판가를 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쟁 과열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양 업계는 올해 초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을 이어온 바 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업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지난해 사회계제도(IFRS 17) 도입 후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로 여겨진다. 보장성 보험은 CSM 확보에 유리해 보험사들의 주요 판매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영역을 확대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연이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

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9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9월 말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 3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624억원(13.2%) 증가했다.

손보사는 8조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8억원(13.6%) 증가했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경우 누적 순이익은 6조6916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사는 5조30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6억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80조8313억원으로 4조3724억원

(5.7%) 늘었고 그 가운데 보장성보험은 13%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SM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보험 집중 판매로 보험사의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 확보 전략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매출이 축소해 제3보험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시장 경쟁 과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가정

하면 5년납 상품의 경우 손실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현금유출액이 증가해 CSM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납 종신 7년납의 경우 CSM배수가 3~4배인데 비해 제3보험의 경우 15~20배로 높아 생보사들이 제3보험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생보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요양 및 치매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은 이미 손보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과열에 따라 상품 차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내년 신계약의 향방은 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보험업계의 특권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내년 신계약의 향방은 전속 설계사 비중, 보장 시점, 보장 횟수 등 상품 경쟁력을 높여 배타적 사용권을 많이 획득한 보험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고맙다 트럼프’ 비트코인 신고가 10만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다.

5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7.10% 급등한 10만282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2조200억달러로 집계되면서 2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비트코인 상승배경에는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낸 앳킨스는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친가상화폐 인사’로 꼽힌다. 폴 앳킨스는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개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에만 약 40% 급등했고, 올해만 상승률이 1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꿀 매물 ‘온비드’에서 쉽게 찾으세요”

캠코, 압류·국유재산 공매 플랫폼
비대면 입찰 가능, 절차도 간소화
부동산 입찰 시 현장 상태 확인을



온비드를 통한 공매 참가 방법. /캠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공매(공개매각)’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가 주목받고 있다.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비대면 입찰이 가능하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매된 물건의 누적 거래금액은 총 1113조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에만 온비드를 통해 1826건의 압류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7950만원, 감정이 대비 낙찰가율은 65.8%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는 각종 압류재산·국유재산을 공매하는 플랫폼이다. 법원 경매와 달리 인터넷·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입찰이 가능해 경매 초보자도 접근하기 좋다. 또한 법원 경매와는 달리 감정이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 비중도 큰 만큼 소액으로도 경매에 도전할 수 있다.

예비 입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압류재산 공매다. 적게는 10~20%,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차량·증권 등을 낙찰받을 수 있어서다.

온비드에서는 매주 유찰 여부에 따라 최저입찰금액이 지정된다. 최소 하한가는 최초 감정의 50%다. 입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압류 부동산 공매에서는 토지가 60~65%, 단독·연립

주택이 65~70%, 아파트가 감정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동산의 경우 물품별로 낙찰가액 차이가 크다.

부동산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사전 방문해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도 공매 물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변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만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압류 부동산 입찰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공공시설물 임대·공공기관 불용품에 대한 공매도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공공시설물 임대는 공립 학교 매점, 공공기관 소유 건물 내 사무실, 공공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권리다. 일반 임대와 달리 업종에 따른 권리금이 없고, 공공시설물인 만큼 고정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임대료 또한 전체 매물의 60% 이상이 연 1000만원 이하로 저렴해, 소규모 창업에 적합하다.

불용품 공매는 더는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유 물품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절차다. 각종 가구나 컴퓨터·노트북 등 전자기기부터 관용 차량, 공공기관 소유 콘도·골프 회원권 등 다양한 물품이 출품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물품인 만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실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비중도 크다.

한편, 캠코는 최근 온비드의 개선에도 돌입했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훨씬 간략하지만, 아직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이용자가 체감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비드는 현재 웹·모바일 환경 개선에 돌입했고, 내후년까지 개선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탁중앙회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전면 중단

신탁중앙회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신탁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신탁중앙회 관계자는 “신탁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서울 집값 37주째 ↑... 매수심리는 7주째 ↓

아파트 매매값 전주대비 0.04% ↑
서초그랑자이 6개월새 3.4억 경총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7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7주째 하락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37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6%→0.06%)가 공덕·창천동 역세권, 중구(0.07%→0.06%)는 신당·황학동, 종로구(0.08%→0.07%)는 무악·송인동 중소형 단지, 용산구(0.08%→0.0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광진구(0.05%→0.0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9%→0.04%)는 서초·잠원동 주요단지, 양천구

(0.05%→0.05%)가 목·신정동, 강남구(0.13%→0.12%)는 논현·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0.06%→0.05%)는 신길·여의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는 10월 전용면적 121㎡가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8월 매매가격(19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그랑자이’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34억2000만원에 거래되면서, 6개월

만에 3억4000만원 올랐다.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전주(99.5)보다 0.3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7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지현 기자 jjw13@

전력기기3사, 공급자 우위 환경 지속... 글로벌 성장 '청신호'

美 등 변압기 부족 현상 장기화
생산설비 추가 확충... 수익성 확대
“국내업체, 해외 수주 전망 긍정적”

미국을 중심으로 변압기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공급자 우위의 시장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수주 단가를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년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기기 3사(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의 외형 성장세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들의 주문 사양이 향상되면서 수주 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공급자 우위 사업 환경 속에서 마진율이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2026년까지도 수익성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최소 2030년까지는 지속되며 전력기기 업체의 수익성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스마트 공장 외경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도 대규모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저렴한 전력 공급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AI·데이터센터나 미국 내 수급 불균형 등도 업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지목되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시설 추가 확충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당초 미국 시장에서 순위권 안에 들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던 중국산 전력기기들이 미·중 무역분쟁 본격화 이후 점유율을 잃은 점도 국내 업체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반덤핑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 바 있다. 트럼프 1기 임기 당시 반덤핑 관세가 60%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반덤핑 재심에서는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변압기 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정권 2기 때에도 과거의 높은 반덤핑 관세가 재현될 가능

성은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아울러 유럽까지도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며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공급 계약을 통해 선제적인 물량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로 수주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인 미국, 중동에 이어 유럽에서도 변압기 부족 현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세다.

효성중공업의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7조3000억원이다. 지난 11월 유럽 수주 실적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신재생 발전 비율이 높은 북유럽 지역에서 초고압 및 대형 변압기 위주로 발주를

지속할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 또한 북미와 유럽 등 주력 시장 외에도 중동 지역 수주가 늘어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가 7조1800억원에 달한다. LS일렉트릭도 북미 지역에서 견조한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어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 2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변압기가 효율성과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해 해외 수주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술·현장·글로벌’ 키워드 인사... 하이닉스, 안현 사장 승진

삼성, CES 초대장 발송 ‘AI for All’ 전략 공유

SK그룹 정기인사

임원 75명 신규선임... 조직개편 단행
AI·DT 등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집중

SK그룹이 ‘기술·현장·글로벌’을 키워드로 2025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새 대통령의 임기를 맞이하는 북미의 복잡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SK아메리카스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있었다.

SK그룹이 5일 오전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SK그룹 인사는 ‘기술 현장 글로벌’을 키워드로 비즈니스 핵심 경쟁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임원 75명을 신규 선임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사업, R&D, 생산 등 현장 및 기술 분야에 특화된 인물들이다. 신규 CEO 인사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 손현호 SK디스커버리 대표

단행한 계열사는 SK디스커버리, SK하이닉스이다.

각 계열사들은 이번 인사로 맞이한 조직변화를 통해 ▲기술·현장 출신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 ▲AI/DT(디지털 전환)에 역량 결집 ▲지정학 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인물 발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나설 예정이다.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사장에는 손현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부사장)이 선임됐다. 손사장은 경영전략 설계와 재무 전문성을 갖춘 인

재다. SK하이닉스는 안현 N-S 커미티 담당이 사장으로 승진해 개발총괄(CDO)를 맡는다. 현재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한 마켓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D램·낸드 기술력 또한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김필석 박사를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환경과학기술원장으로 영입했다.

SK온은 SK하이닉스의 인재들을 영입하며 계열사 전반의 체질변화를 꾀한다. SK온은 신창호 SK PM 부문장을 신설한 운영총괄 임원으로 선임했다. 또 피승호 SK실트론 제조·개발본부장을 제조총괄로 선임했다.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섀미 복잡해진 북미 이슈를 위한 인재

영입도 있었다.

올 상반기 SK그룹의 북미 대외 업무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SK아메리카스는 지정학 이슈에 빠른 대응을 위해 대관총괄에 폴 딜레이니 부사장을 선임했다. 폴 딜레이니 부사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미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고문 등을 역임하다 지난 7월 SK아메리카스에 합류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그룹 미주 GR(Government Relations)을 총괄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게 되었다.

SK그룹은 그룹 전반의 AI/DT 가속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실시한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전략/Global위원회 산하에 있는 AI/DT TF를 확대 운영한다.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맡고 있는 AI TF는 AI 추진단으로 확대하며, 윤풍영 SK㈜ C&C CEO가 맡고 있는 기존 DT TF와 별개로 DT 추진팀도 신설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가 5일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들에게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의 초대장을 보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CES 2025 개막 하루 전인 내년 1월 6일 오후 2시(현지 시간) 프레스 콘퍼런스를 실시하고,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경험과 혁신의 확장’ (AI for All: Everyday, Everywhere)이라는 주제로 삼성전자의 홈 AI 전략이 공개될 계획이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삼성전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삼성전기의 ESG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기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수원·세종·부산 등 국내 사업장과 중국 천진 사업장에서 자원순환율 99.5% 이상을 달성해 폐기물 매립 제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고, 금년에 중국 고신·베트남·필리핀 사업장도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국내외 모든 사업장이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삼성전기는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사업장별 재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 확대하는 등 자원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박현진 “밀리의서재, AI 기반 ‘독서 라이프 플랫폼’ 혁신”

(밀리의서재 대표)

밀리 페어링 등 신규 서비스 4종 공개

“여러 서비스를 많이 선보였지만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독서가 변했습니다.”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인공지능(AI) 기반 독서 서비스를 앞세워 독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현진 밀리의서재대표(사진)는 5일 서울 마포구 밀리의서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독파밍 ▲밀리 페



어링 ▲필기 모드 ▲독서 기록 등 신규 서비스 4종을 공개하며 ‘독서 라이프 플랫폼’ 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춰 끊임이 없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밀리의서재가 단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넘어 독서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의서재는 현재 AI 음성합성(TTS), AI 스마트 키워드, AI 페르소나 챗봇 등 AI 기술을 접목한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며 독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내년에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 차세대 AI 기반 서비스를 선보인다. 그중 AI 독파밍은 독서 중 AI 챗봇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책의 내용을 탐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책 뷰어 내 AI 독파밍 아이콘을 선택하면 AI 챗봇이 실행돼 책의 내용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적인 본문 내용 안내 기능부

터 시작해 심도 깊은 대화형 독서가 가능하도록 발전할 계획이다.

방은혜 AI 서비스 본부장은 “AI 독서 메이트처럼 개인 맞춤형 독서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국내 최초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밀리의서재는 현재 누적 가입자 820만명, 보유 콘텐츠 20만권으로 독서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박현진 대표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시장의 리더를 넘어 독서 시장 전반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콘텐츠와 사업 영역 확장 의지를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기아, 2년 연속 '수출의 탑' 수상... 전기차·SUV가 견인

창립 80주년, 수출 실적 신기록

256억 달러 기록, 전년비 9% ↑
전기차 수출 급증... 7배 성장
북미·유럽 중심으로 수출 확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기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도 지속적인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향상, 고객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호성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기아차 양재본사.

기아 창립 80주년인 해인 만큼 수상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해당 기간(2023년 7월1일 ~ 2024년 6월30일) 수출 실적은 25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35억달러) 대비 9.0% 증가하며 2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기아 윤승규 부사장은 수출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기아의 수출 증대에는 전기차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만 4766대였던 기아의 전기차 수출은 2023년 17만8412대로 7배 넘게 증가했다.

기아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EV6를 2021년 하반기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상품 경쟁력을 입증했고, 2023년에는 플래그십 전기차 SUV 모델인 EV9의 출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전동화 리더십을 확보했다. 올해는 대중화 전략 모델인 EV3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성했다.

기아의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는 수출에서 고부가 차종인 SUV와 HEV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2019년 기아 수출 중 SUV 비중은 62%였으나, 지난해에는 78%로, 4년 새 16%포인트 상승했다. 또 기아의 2023년 HEV 수출은 12만4005대로, 전년 9만8877대 대비 25.4% 증가했다.

기아는 전기차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기존 오토랜드광명 2공장을 '광명 이보플랜트'로 탈바꿈시켜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구축

한데 이어 내년에는 '화성 이보플랜트'를 준공해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차량을 본격 양산한다.

한편 기아는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상품 라인업과 강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신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아의 지난해 수출은 미국·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40%,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31%, 아시아·태평양 10%, 중동·아프리카 10%, 중남미 6% 등 글로벌 전 지역에 걸쳐 있다.

지난 1975년 카타르에 브리사 픽업 트럭 10대를 선적하며 시작된 기아의 수출은 20년만인 1995년 누적 100만대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역사적인 누적 수출 1000만대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누적 수출 실적을 2000만대로 늘렸다. 이후 수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올 10월말 현재 누적 수출 대수는 2390만대에 이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운전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성 강화

AI 반도체기업 암바렐라와 협력 인캐빈 센싱, ADAS 시장 공략 강화 인공지능 반도체로 사고 예방 목표

LG전자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Ambarella)와 협력해 차량 안전 기술 성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암바렐라의 차량용 반도체 '엣지 AI 시스템온칩(System on Chip)'에 담아낸 첨단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DMS·Driver Monitoring System)'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에 특히 강점이 있는 암바렐라 시스템온칩에 고성능 DMS 솔루션을 탑재해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LG전자와 암바렐라는 '안전을 위한 기술 구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운전자 및 차량 내부 공간 감지 '인캐빈 센싱(In-cabin sensing)'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 솔루션은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엣지 AI 시스템온칩을 탑재한 인캐빈 센싱. /LG전자

차량 내부를 감지·분석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카메라로 운전자의 시선, 머리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지해 분석한다.

만일 졸음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부주의한 행동이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서 운전자와 탑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 이 제품은 다양한 기능을 반도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온칩 형태로 개발돼 효율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

LG전자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인캐빈 센싱 기술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한 극한상황의 주행 테스트 등을 통해 차세대 인캐빈 센싱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들에게 자동차 안전평가(NCAP)와 같은 강화된 안전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인캐빈 센싱 솔루션 분야 협력을 지속해 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차량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인캐빈 센싱 기술도 더욱 주목받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인캐빈 센싱, 전방 카메라, 레이더 등이 포함된 글로벌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2025년 253억 달러에서 2030년 53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에서 인캐빈 센싱을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빠른 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이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차그룹, 美전문지 베스트10에 3종 선정

아이오닉 5 / 5N·텔루라이드·GV70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2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상승세를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가 주관하는 '2025 베스트 10(이하 베스트 10)'에 ▲현대차 아이오닉 5 / 5N ▲기아 텔루라이드 ▲제네시스 GV70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현대차그룹의 3개 브랜드가 모두 이름을 올리는 동시에 자동차 그룹 기준으로 최다 차종이 선정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또 현대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 차량이 베스트 10에 올라 우수한 전기차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카앤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 이래 미국은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동차 전문지로, 주행 성능, 차량 가치 등에 대한 에디터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매년 최고의 차량들을 선정하고 있다.

베스트 10은 카앤드라이버 에디터들이 현재 북미에서 판매 중인 11만 달러(한화 약 1억 5500만원) 미만의 SUV, 트럭, 밴 등의 차량을 2주간 시승한 후



제네시스 GV70.

차량의 성능과 가치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개 차종을 뽑는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사용자 중심 실내 인터페이스 ▲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등을 바탕으로 3년 연속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고성능 전동화 모델인 아이오닉 5N이 추가돼 이번 수상에 힘을 실었다. 아이오닉 5N은 ▲최고출력 478kW(650마력)의 우수한 동력 성능 ▲3.4초의 뛰어난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다양한 고성능 전동화 특화 사양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성운 기자

AI·마케팅 자동화로 고객 맞춤형 전략 제시

CJ올리브네트웍스, CIS 2024 참가

CJ올리브네트웍스가 5일 잡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CIS 2024(Convergence Insight Summit 2024)' 컨퍼런스에 참가해 AI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CIS 2024는 AI와 IT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 융합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IT·재무·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해 인사이트를 공유

하는 컨퍼런스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글로벌 마케팅 자동화 및 개인화 솔루션 플랫폼 브레이즈(Braze)와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여 세션 발표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와 고객 인게이지먼트 전략의 융합'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 ▲고객 참여와 마케팅 성과 개선을 위한 솔루션 제시 ▲제한된 리소스 상황에서의 최적화 방안 등 현업에서

브레이즈를 활용한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세션을 통해 효과적인 데이터 솔루션 활용을 위한 AI기술과 데이터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며, 고객별 맞춤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의 브랜드 여정을 강화하는 AI 활용 전략도 제안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 마케팅 솔루션 담당자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다양한 고객사들과 협업하며 얻은 디지털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AI 기반의 마케팅 솔루션의 역할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기업 맞춤 마케팅 지원 AI 상품 'N클루' 공개

네이버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

네이버클라우드가 5일 자사 초거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고객분석·마케팅 지원 상품 'N클루(NCLUE)'를 출시했다.

N클루는 네이버의 수천만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선보인 상품이다.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N클루 모

델에 입력하면 고유한 N클루 피처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피처를 활용해 자사 고객 행동 예측,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고 다양한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재학습되거나 타사와 공유되지 않기에 개인정보 이슈 없이 안전하게 타깃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국내증시 약세 속 게임 파동까지... '인버스 ETF' 수익률 ↑

KOSEF 200선물인버스2X 등
최근 한 달간 10% 가량 올라

레버리지 ETF는 투자릿수 하락률
정치적 리스크 반영에 변동성 지속

국내 증시가 이달 들어서도 약세를 지속하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취약한 펀더멘탈에 더해 게임 파동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버스 ETF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KOSF 200선물인버스2X', 'TIGER 200선물인버스2X', 'PL US 200선물인버스2X', 'KOSF 200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인버스ETF' 이미지.

선물인버스2X' 등은 최근 한 달간 10% 가량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트럼프발(發) 관세 리스크' 등으로 울

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이달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승장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23%),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22%), 'ACE 레버리지'(-10%), 'KODEX 레버리지'(-10%) 등이 투자릿수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체 여파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리고 레버리지 ETF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코스콤ETF체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KODEX 레버리지' ETF에 806억원을,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에 394억원을 순매수했다. 또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 (266억원)과 'TIGER 200' (179억원) ETF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00년 IT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6개월 동안 하락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둔화와 미·중 분쟁, 그리고 '탄핵 정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코스피는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치, 경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 한국 전망이 달라질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변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의 한국 증시 회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감원-증권사,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대응

국내 증권사 36개 CEO 등 한자리에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 최적화해야
내부통제·인센티브 구조 원점 점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 시장 전반으로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 36개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5일 합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6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각사가 경각심을 갖고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긴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모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함 부원장은 CEO 책임 아래 내부통제와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사례를 들며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보수 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



합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하도록 유도했다"며 "업무별 목적에 부합한 인센티브 구조가 설계돼 있는지와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CEO가 직접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함 부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경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 보수 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유도했다"며 "상급자의 수직적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감사 부서의 수평적 내부통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전혀 통제·관리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감원은 ETF LP 업무 과정에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금융 사고를 헤지 업무 부서에서 PI 부서와 동일한 성과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 거래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단순 헤지 업무 부서에 고위투자(PI) 부서와 동일한 성과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 거래가 발생했다"며 "CEO 책임하에 부서별 연의 성과 보수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공개매수 등 주관 업무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공모가격 부풀리기,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 등도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IPO 주관 업무 수행시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선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증권사 CEO들은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겠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전사적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증권 '기업 재무 세미나' 성료

삼성증권은 국내외의 주요 상장·비상장기업의 재무담당자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재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을 앞두고 유승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의 '2025년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과 김은기 수석연구위원, 박주환 채권상품팀장의 '2025년 글로벌 경제 및 채권시장 전망'·법인 자금의 채권운용전략,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자본시장 제도 변화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약 190개 법인, 200여명의 법인자금 운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삼성증권

예탁원 "디지털 혁신 선두주자 될 것"

창립 50주년 콘퍼런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예탁결제 업무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예탁결제원은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의 선두 주자가 되어 최선을 다해 금융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행사 식순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합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코스콤·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예탁원이 자본시장의 견고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로 성장했다"며 "국회 또한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

되기 위한 예탁원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예탁원 간의 협력 관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한 시장 참가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피터 스나이더스 유로클리어뱅크 CEO는 "세계적으로도 50주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CSD는 많지 않다"며 "예탁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 처음으로 국제통합계좌를 열었던 것과 같이 향후에도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앨버트 박 수석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의 확산과 금융산업의 진화'를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틸 메데우 국제예탁기구 의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후 브라질인 패스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대표가 좌장을 맡아 '혁신금융기술의 도입과 CSD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 금융 데이터 분석가 양성교육

K-디지털 트레이닝 선도기업 선정

키움증권이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가 양성 교육에 나선다.

5일 키움증권은 'K-디지털 트레이닝'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준비생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인재 양성 사업이다. 선도기업은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키움증권은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금융데이

터 분석가 8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 1기 40명을 선발하고 5개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기 교육은 하반기에 진행한다.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KIDIS)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해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이론과 실무과정, 멘토링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작동원리, 다양한 금융상품의 특성 등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학습한다. /원관희 기자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연내 2000억 대출 등 맞춤형 대책 공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피해구제·규제개선 등 3대 축 중심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상환연장 포함 내년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신규공급 제도전특별자금 등 인센티브 제공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00억원의 저금리 대출자금을 이달 안에 추가로 공급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 소상공인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해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원금·이자를 납부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신규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현장 밀착형 규제를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회의는 전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일정이 취소돼 이날 다시 열렸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금융지원 3중세트 추가 개선내용〉

구분	추가 개선	
정책자금 상환연장 (소진공)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중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 - 다중채무 기준: 現3→改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보유 - 매출감소 기준: 現전기대비 10% 이상 감소→改전기대비 감소로 개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편의성 제고	·신규대상자 타겟형 홍보
저금리 대출대출 (은행→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상품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신설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제도전특별자금' 연계 지원(한도 7천만원,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1.6%p)
	편의성 제고	·채무조회 플랫폼 구축 + 대출대출 전문 영업점 지정
전환보증	추가 금융지원	·지역신보: 5~8조원 / 기술보증: 신규 2조원
	성실상환 인센티브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신설공급

소상공인의 금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월3일에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업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지원 3중세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3중세트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저금리 대출대출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해야 했다면 이제는 2개 이상만 돼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이 충족된다. 매출도 전기대비 감소하면 인정된다.

취약소상공인에는 추가로자금을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리대출자금은 이달안에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총 8조원으로 늘리고, 내년 1월부

터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한 거치형 대출대출(2년 거치 8년 분할상환)도 신설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내년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목표액은 총 10조원으로 잡았다. 앞으로는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보 재기교육 등도 원금 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덧글)를 뿌리 뽑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운영한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의 대응책으로는 외식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을 내놨다.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덧글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는다.

이 외에도 직역을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 내년 한시 허용,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등 소상공인 관련 업종 입점 허용 등 현장에서 겪는 돌부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낼 계획이다.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로 만드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은 기업으로 키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00개 기업(로컬브랜드)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에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생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중세트’ 제도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전면 개정도 착수한다.

지역주도 상권발전기금 조성 마중물 자금으로는 2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출자·결성해 지역상권에 투자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문제가 불거진 온누리상품권은 발행·환전체계를 손본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환전시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의 환전을 원천 차단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를 막는 방안으로 구매한도 제한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옴부즈만,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관계부처 ‘경제규제 혁신방안’ 3대 분야 36개 주요과제 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 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

회 등 기업·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 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

모기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

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낫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의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뚜람·뚜림이 디자인 ‘핫팩’ 편슈머 마케팅

귀뚜라미가 보일러처럼 따뜻한 열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핫팩으로 편슈머(Fun+Consumer) 마케팅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공식 캐릭터 뚜람이와 뚜림이를 디자인한 ‘귀뚜라미보일러 핫팩’ (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보일러처럼 따뜻한 핫팩’이라는 콘셉트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후 2022년에는 뉴트로 감성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뚜람이’를 전면에 내세운 캐릭터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올해는 뚜람이와 여성 캐릭터 뚜림이가 함께 등장해 더욱 다채로운 겨울 분위기를 연출한다. 캐릭터 디자인은 ‘엄지 척 뚜람이’와 ‘뚜림이의 성탄 선물’ 그리고 ‘뚜람이 뚜림이의 커피 한잔’ 등 총 3종으로 구성했다.

특히,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변온발색’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벤처기업 일본진출 추가 지원

日 오픈이노베이션서 기업 20곳 추천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추가로 지원했다.

벤처협회는 일본 도쿄 도라노몬 힐즈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열린 아시아 최대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행사 ‘이노베이션 리더스 서밋(II.S) 2024’에 국내 자문기관으로서 한국 기업 20개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매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I.S는 약 250개 글로벌 스타트업의 피칭과 전

시부스, 100여건의 대기업 리버스 피칭 및 미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일본 대기업 126개사와 스타트업 800여개사가 참가해 3000여건의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됐다.

벤처협회는 이번 II.S2024에 대기업의 상담매칭 선호도가 높은 화학, 재생에너지, 탈탄소화,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배터리, 제조,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일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사와 창업초기 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식품기업 수출·디지털 전환 지원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식품기업 수출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돕는다.

중진공은 5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강석진 이사장,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식품 수출기업에

해의 주요국의 수입식품 안전기준 및 규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을 공동 발굴해 집중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사항은 ▲식품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협업체계 구축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푸드 QR 관리시스템 도입 등 식품업 디지털 전환 지원 ▲식품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정보 공유 ▲국내 식품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홍보 강화 등이다. /김승호 기자

10가구 중 4가구 '수돗물 먹는다' 만족도 58%, 환경·경제적 장점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수질 믿을 수 있다는 응답 '61.3%'
수질 관리, '수도관 교체' 가장 많아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2021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수도협회에 위탁해 진행했으며, 전국 7만 2460가구를 표본으로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방법,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와 향후 방향 등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중복 선택)으로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응답해 2021년 36%에 비해 1.9%포인트(p) 상승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응답은 53.6%로



5일 환경부가 전국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21년 대비 4.2%p 증가했으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는 34.3%로 2021년 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이 58.2%로, 이 중 '약간 만족'은 51.4%, '매우 만족'은 6.8%를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였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수돗물에 대해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라고 생

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와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 합산)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42.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세척 지원'(38.0%),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36.1%), '원수(상수원) 수질관리'(35.3%)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량 등을 포함하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조9000억원(국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전국 116개 지자체에 3991억원(국비)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촌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6곳 선정

농식품부, 제주 서귀포 하례리 최우수

농촌 체험과 관련해 창의적 프로그램을 고안한 업체 6곳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모전 개최를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아 농촌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서울 모처에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독창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영체 6곳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 ▲향후 농촌관광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수상작 외에도 지난 6월 선정된 40개 사업 대상 경영체들이 올 한 해 개발하고 운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

을 이끌어낸 경영체 6곳에는 농식품부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농어촌 자원개발원 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 하례리 마을이 받았다. 이 마을은 막걸리 만들기, 김기 담그기 등 전통 체험과 제주 자연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 하동 금향다원과 경남 밀양 열매가꾸른날이 받았다. 금향다원은 전통 차 문화와 다도 체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열매가꾸른날은 블루베리나무 심기, 수확 등 가족단위 체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장려상은 전남 안도 울도레마을, 전남 담양 창평권역, 경남 김해 한림알로에 등이 수상했다. 이들 경영체에서는 해양과 농촌이 융합된 유리공예 체험, 전통 장류 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비축유 대여절차 대폭 간소화할 것"

산업부 박성택 1차관 수출 현장 점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유종 다양화와 비축유 신속 대여 등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사진)이 5일 오후 충남 서산 소재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액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7%, 5.6% 감소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로 인해 제품 운반선 5척과 원유도입선 3척의 입항 지연으로 수출·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같은 항만을 이용하는 HD현대케미칼의 경우도 5척의 제품운반선 선적

지연이 지난달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박 차관은 이날 수출 선적 및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정부는 이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생산·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별 사용유종을 고려해 비축유 유종을 기존 중질유 중심에서 경질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 필요시 비축유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축유 대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석화 생산현장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료비 절감과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로의 사업재편 등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방산 생태계 역량 선진국 대비 60%"

산업연,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
수출 증가에도 전통적 생태계 한계
민간 혁신·수출산업화로 도약 모색

한국의 방산산업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

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친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를 차지한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日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유치 총력"

코트라, 도쿄서 투자유치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일본 도쿄 폐닌술라호텔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80여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코트라는 한국 투자 환경을 발표했고, 일본 SMBC 은행은 일

본의 대한 투자 현황을 설명했다.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동향, 지역별 투자 환경 등을 알리고,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 KPMG는 한국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 공제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시장기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와 경기경자청은 참가기업들과 1대 1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했으며, 6일에는 대구시, 경기경자청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코트라

과 코트라가 합동으로 국내 투자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을 직접 방문해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47년 된 아파트, 지자체 직권 건축물대장 생성

공정위, '누락된 한 세대' 생성 권고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며 권익위에 고충민

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제3회 소담회 정기전

The 3rd SODAM Art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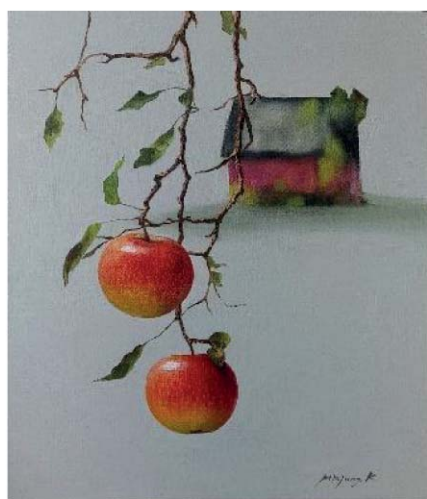
Gallery **오람**

Dec 1 ~ 8
2024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매주 일, 월요일 정기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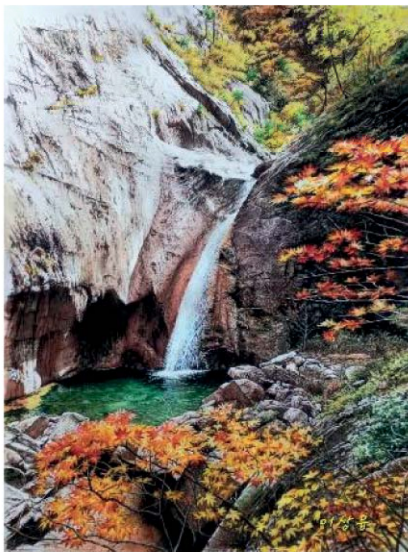
Formentation II
강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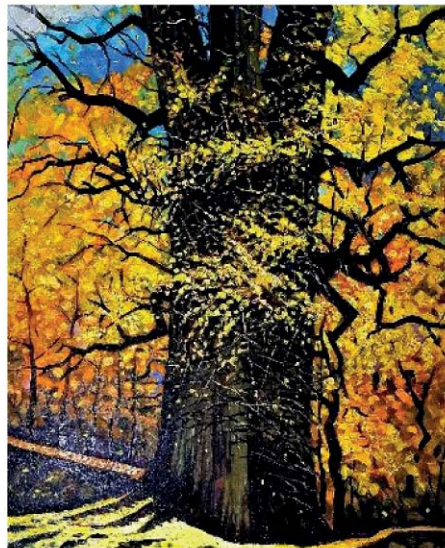
가을의 선물
김민정



Perfume 2024
김현정



천당폭포
이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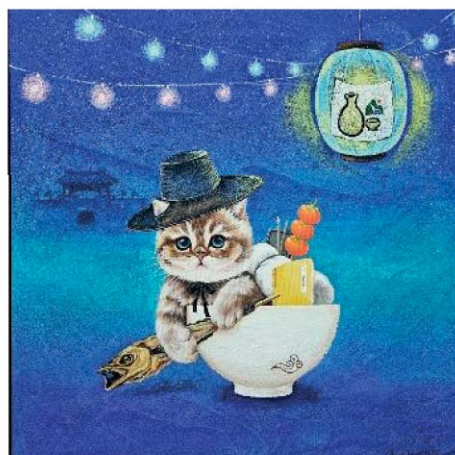
천년의 화석
김유식



나 꿈이 생겼어_롤리팝나무
김경아



sweet cloud vine
Berry-J



행복을꿈꾸는 냥이(선비냥이)
배인영



작약
박희정

“15m 트리서 ‘인생샷’... 크리스마스엔 ‘몰리데이’ 어때요?”

〈쇼핑몰(Mall)+홀리데이(Holiday)〉

코카-콜라, 스타필드에 팝업 오픈 15m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 마련 포토존·글라스하우스 등 볼거리 신세계사이먼 파주-위글위글 맞손 29일까지 ‘메리 위글마스’ 행사 파라다이스시티 ‘기차여행 테마’ 2700평 규모 실내 광장에 팝업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in 스타필드 팝업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코카-콜라



파라다이스시티가 ‘그랜드 산타 익스프레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대형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을 연다. /파라다이스시티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로 따뜻한 실내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몰리데이’가 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몰리데이’는 ‘쇼핑몰(Mall)’과 ‘홀리데이(Holiday)’의 합성어로 크리스마스 등의 홀리데이 시즌을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에서 즐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형 쇼핑몰이 쇼핑과 식사, 볼거리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다. 특히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유통업계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쇼핑몰 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특별한 공간 조성에 나서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in 스타필드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in 스타필드’ 팝업스토어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전하기 위해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간에 규모감 있게 구성됐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코카-콜라와 크리스마스의 상징물로 꾸며져 있어, 쇼핑몰 방문객이라면 누구든 코카-콜라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의 콘셉트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테마 전시물들을 직접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빌리지다. 특히 다채로운 포토스팟들이 마련돼 크리스마스 감성 가득한 작은 마을로 들어선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전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5m의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다. 건물 2층에서도 특별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자이언트 트리 빌리지’ 앞은 인기 포토 스팟으로 꼽히며, SNS 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외에도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트럭에서 선물이 쏟아지는 공간을 연출한 포토존부터 알록달록한 컬러의 유리로 디자인된 ‘글라스 하우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마련됐다. 특히 크고 작은 트리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이국적인 크리스마스의 정취를 느끼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가족, 연인 등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지 않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내년 1월 1일까지 운영된다.

다. 캐치테이블 앱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입장 등록이 가능하다. ◆신세계사이먼 파주에서 ‘메리 위글마스’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 손잡고 ‘메리 위글마스’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센트럴 스퀘어는 위글위글 시그니처인 ‘위글베어’와 ‘스마일 위 러브’를 중심으로 귀엽고 발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쇼핑센터 곳곳 화단과 조경수에도 은하수 네온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따스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센트럴 스퀘어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남기는 ‘인생샷’도 빼놓을 수 없으며, 위글위글 매장에서는 브랜

드 인기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현장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는 고객 대상으로 위글 위글 장갑, 아메리카노 교환권 등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파라다이스시티, 설레는 크리스마스 마켓 파라다이스시티는 크리스마스 럭셔리 기차 여행을 테마로 연말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는 ‘그랜드 산타 익스프레스’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2700평 규모의 실내 대형광장 ‘플라자’에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기차 관련 오브제들로 수놓은 대규모 크리스마스 마켓 팝업이 열린다. 기차역으로 꾸며진 마켓에는 소품 브랜드 ‘우더플레이프’, ‘피치스트로베리’, ‘제이 닷트리’와 수제 와플 맛집 ‘와플샵’ 등 약 23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기차역을 연상시키는 부스를 운영한다. ‘크로마’ 외벽에는 올해 말까지 ‘파라다이스시티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지고, ‘원더박스’ 외벽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약 95m의 스크린에 크리스마스 테마 영상을 상영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총 1억원 상당의 역대급 경품을 증정하는 증강현실(AR) 기술 활용 이벤트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B2B 뉴트리션 사업 키운다

새로운 전략 ‘3B 사업모델’ 도입 ‘바이오펜리치’ 글로벌 시장 판매 CJ제일제당이 새로운 B2B 제품전략을 통해 글로벌 뉴트리션 원료 사업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뉴트리션 원료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3B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새로 진출한 뉴트리션 분야에서 제품 라인업을 늘려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B’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의 원료를 CJ제일제당의 브랜드와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는 ‘보로(Borrow)’ ▲기능성이 검증된 연구 전문기업 제품에 투자해 사업권·영업권 확보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시너지를 내는 ‘바이(Buy)’ ▲자체 기술력을 활용해 새로운 뉴트리션 원료를 개발하는 ‘빌드(Build)’ 모델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3B 모델’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 확장을 본격화했다. ‘빌드’와 ‘보로’ 모델로는 기능성 바이오티크스 원료 브랜드인 바이오펜리치(BioMeNrich)를 출시했다. 총 7종의 프로바이오틱스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로 구성된 ‘바이오펜리치’는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소재와 국내기업이 연구개발한 소재를 활용해 만들었다. 수면·피부·근력·체지방 관련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바이’ 모델의 첫 사례로 아일랜드 기업 뉴리타스(Nurit as)에 투자, 이 업체가 AI를 기반으로

개발한 식물 유래 펩타이드 원료 펩티스트롱(PeptiStrong)의 국내 독점 영업권을 확보했다. 펩티스트롱은 운동 시 근력 및 피로도 개선 등의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GRAS(최상위 안전원료 인정 제도) 인증을 획득했으며 글로벌 식품안전규격인 FSSC 22000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된다. 현재 북미 스포츠·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 중이며, CJ제일제당이 독점 유통권을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국내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3B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해외의 우수한 뉴트리션 소재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뉴트리션 원료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파스퇴르, 헬스·웰니스 강화 ‘브랜드 리뉴얼’

‘우유 기반의 영양’ 정체성 재정립 롯데웰푸드의 유가공 브랜드 ‘파스퇴르’가 브랜드 재정립에 나선다. 파스퇴르는 지금까지 국내 최저의 살균공법 우유로써 본연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는 고품질의 우유 브랜드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 및 자기 관리 및 건강 추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우유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파스퇴르는 브랜드 정체성을 ‘우유 기반의 영양(Nutrition)’ 브랜드’로 재정립한다. 고품질 우유를 넘어 생애주기별 영양설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영양 전문 브랜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맛은 물론이고 유산

균, 단백질 등 다양한 기능성 요소들을 포함한 헬스·웰니스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BI도 새단장한다. 기존 파스퇴르 BI의 전문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는 유지하면서도 보다 높은 가독성을 위해 색상과 문자를 분리했다. 빨강, 초록, 파랑의 파스퇴르 심볼 색상은 세 가지 도형으로 형상화되어 그간 파스퇴르가 쌓아온 고품질, 고영양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신원선 기자



파스퇴르 신규 BI 및 디자인 리뉴얼이 적용된 제품들. /롯데웰푸드

버디패스 구독자, 스타벅스 더 자주 간다

11월 평균 구매액 61%, 건수 72% ↑ 스타벅스코리아는 구독 서비스 ‘Buddy Pass(이하 버디 패스)’ 론칭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전체 가입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독 전과 비교했을 때 매장에서 구매하는 금액과 방문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0월 1일 론칭한 버디 패스는 매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는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과 푸드 30%

할인(1장),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1장), 온라인 스토어 배송비 무료 쿠폰(2장)으로 구성된 스타벅스 최초의 구독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디 패스 이용자들은 가입 이후 11월 평균 구매 금액과 구매 건수가 구독 서비스 론칭 전인 9월 대비 각각 61%,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구독 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구독 서비스 이



모델들이 스타벅스 구독 서비스 Buddy Pass를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용 고객이 받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월 평균 2만3300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구독료(7900원)의 약 3배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마이홈플러스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기존보다 1년 연장한 3년으로 홈플러스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은 홈플러스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무료 회원제 서비스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통합 무료 멤버십 ‘홈ONE 등급제’ 출범 이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가입 고

객에게 지난 1년간 약 2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 포인트 유효기간 확대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 고려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멤버십 고객 확대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7000원 상당의 쿠폰팩이 2개월간 상시 제공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셀트리온, 송도 3공장 본격 가동 25만 l 바이오의약품 상업 생산

7500 l 배양기 총 8개 배치
자동화 등 최신기술 총 집약
고역가 제품 생산... 경제성 극대화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을 본격 가동하며 25만리터 생산 시대를 연다.

셀트리온은 3공장의 주요 장비 생산 공정의 완전성을 입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PQ) 등 과정을 마치고 원료의약품(DS)의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7개월간 약 270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약 2만2300㎡(약 6760평), 지상 5층 규모의 제3공장을 준공했다. 3공장은 총 6만리터 규모로, 셀트리온은 10만리터 규모의 제1공장과 9만리터 규모의 제2공장을 더해 총 25만리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

3공장은 변화하는 바이오의약품 트렌드에 맞춰 의약품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 변화와 요구에 신속히 대응



셀트리온 인천 송도 공장 전경

/셀트리온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같은 양의 배양액에서도 더 많은 바이오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는 고역가(High titer) 제품 생산으로 경제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에 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기존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를 위해 3공장은 7500리터 배양기 총 8개를 배치하고,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하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와 자동화 기술 확대 등 최신 기술을 집약했다. 오염에 취약한 구역을 클린룸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정제 과정에는 고농축 희석 방식을 적용하고 배관·탱크 크기 등을 최적화했다.

3공장이 본격적인 상업생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셀트리온이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신규 바이오시밀러와 후속 파이프라인도 생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셀트리온은 1, 2공장에서 기존 제품의 상업생산을 지속하고, 3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개발 중인 신제품 생산을 더불어 진행하며 가동률을 높이고 기존 시설과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상,醬 문화 지킨다... '전통 잇-다' 다큐 공개

'모수 서울' 오너 셰프 안성재씨 참여
순창 고추장 장인들의 이야기 소개

대상 '청정원 순창'이 '한국의 장(醬)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며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 전인생 통으로 잇다'를 공개했다.

지난 4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전통 장 문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국내 대표 장류 브랜드 '청정원 순창'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은 유네스코 등재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실제로 전통적인 향아리 제조 방식을 응용한 발효 숙성공법인 '향아리원리신(新)발효공법'을 개발해 전통 장 담그기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전통 장류와 장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순창군 및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순창 고추장의 전통적 가치 조명을 위해 '전통 잇-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 1989년부터 국내 장류 시장을 선도해 온 '청정원 순창' 브랜드의 입지를 한번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순창 지역에서 맥을 이어온 고추장 장인 4인의 삶과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담아냈다. 국내 유일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모수 서울'의 오너 셰프 안성재 씨가 참여해 장인들의 고추장에 대한 열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게 된다.

안성재 셰프는 평소 한국 전통 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다큐멘터리 참여를 통해 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전통 잇-다'는 안성재 셰프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순창 고추장의 가치를 이어온 4명의 장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해 온 '고은주 장인'의 '정통을 잇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변화에 발맞춰 현대적 방식을 접목한 '조종현 장인'의 '현대를 잇다' 이야기, 장 담그기 체합 등을 통해 장 문화 대중화와 홍보에 힘써 온 '서영순 장인'의 '널리 알려 잇다', 고추장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설동순 장인'의 '멈춘 잇다'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엔씨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90% 승인

500여명 직원 사표 전망

엔씨소프트가 실적 부진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500여 명의 직원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희망퇴직 신청자 5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달 내로 퇴사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엔씨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 6월 기

준 4886명(기간제 근로자 124명 포함)이다.

이번 희망퇴직은 게임 개발 조직과 비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30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약 500명이 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인사고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직원들과 분사 예정인 조직의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바이오팜, 커머셜 본부 신설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SK바이오팜은 '2025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는 격변하는 시장 환경 및 제약·바이오 업계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우선 SK바이오팜은 차세대 신약과 이프라인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기존 모달리티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연구개발 조직을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전략, 기술 소싱 및 분석, 내부 과제 인큐베이션, 전임상 등으로 순차적



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중심 조직으로 강화된다.

SK바이오팜은 이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팜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커머셜 본부를 신설해 판매와 유통 전반을 일원화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K바이오팜은 조형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사진)을 새롭게 선임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케미칼, 박현선 파마사업 대표 선임

제약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기대

SK케미칼은 박현선 파마기획실장(사진)을 SK케미칼 제약 사업인 '파마사업'의 신입 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에 따르면 박현선 신입 대표는 약학 전공자로 마케팅·개발·전략 등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케미칼에서 파마기획실장을 역임하며 제약·바이오 사업에 대한 깊은 식견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SK케미칼은 박현선 신입 대표가 기존에 주력해 온 제약·바이오 분야 사업을 고도화하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등 SK케미칼 제약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케미칼은 그린 케미칼 사업에서는 윤원재 용도개발실장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청하 기자

LG생건, 아마존 블프 역대 최고실적

'미감수' 제품군 성장 견인

LG생활건강은 지난 11월 21일~12월 1일 북미 최대 e커머스 아마존에서 열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역대 최고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매출액은 지난 2023년 같은 행사 대비 156% 증가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더페이스 샵'의 성장세가 148%로 가장 가팔랐다. 특히 미감수 클렌징폼은 전체 세안 제품 판매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 미감수 클렌징오일은 메이크업 제거용 오일 부문 3위, 미감수 듀오 세트는 스

킨케어 세트 부문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눈가 관리용 신제품인 '아쿠아 밤 아이 젤'이 눈 스킨케어 부문 4위를 차지하며 빌리프 브랜드 성장률을 116%로 끌어올렸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에 참여한 고급 구강관리 브랜드 '유시몰'은 치약 부문에서 국내 오랄케어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인지력 개선 건기식 선보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출시

JW중외제약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은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인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권장 섭취량 300mg 함유한다.

특히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대두에서 추출한 순도 70% 이상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사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였다.

또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



'두뇌 생생 인지력 포스파티딜세린' /JW중외제약

린'은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 10μg,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E 11mg도 포함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AGICIAN SANTA



CHRISTMAS WREATH



Magical
CHRISTMAS-
MAS

LITTLE MAGICIAN RUDOLPH



MAGIC MUFFLER SNOWMAN



현대모비스, 환경정화 등 사회공헌 앞장... 표창·인증 줄이어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 행안부 '자원봉사대상' 장관 표창

현대모비스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이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장관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사회공헌활동(CSR) 비전을 기반으로 교통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공학인재 육성,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24 지역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자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인천 미호강 일대에서 서식하는 생태 생물 종 현황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생물대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원봉사대상'에서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등 분야에서의 사회공헌활동 공적을 심사해 선정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번 심사에서 전 영역에서 최고 등급(레벨5)을 획득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의 47개 사업장 근처 사회복지단체와 결연을 맺어 청소년 공학교실, 취약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환경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와 함께 생물 다양성 보

전과 멸종 위기종 보호 활동 등 친환경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부터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6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Move Together' 라는 사회공헌활동시스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김영광 ESG경영추진실장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B, 미디어창작콘텐츠 시상식 개최

SK브로드밴드는 전 국민 대상 영상공모전인 제9회 미디어창작콘텐츠 시상식을 4일 서울시 마포구 라이즈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동네 ESG 이야기'를 주제로 마을공동체, 기후위기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모에 참여했고, 17편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SKB



컴투스그룹, 김장 나눔 봉사활동 전개

컴투스그룹은 겨울 김장철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5일 밝혔다. 봉사단은 약 800kg의 배추를 정성껏 버무리고 직접 포장했으며, 완성된 김치를 금천구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통해 80여 지역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컴투스그룹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

17회 코리아패션대상

지속가능 패션브랜드 선도적 역할

제로웨이스트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파츠파츠(PARTsPARTs) 임선옥대표가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4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제17회 코리아패션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패션대상은 패션인공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식을 진행하는 행사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임 대표는 대한민국 1세대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이너로 2010년 제로웨이스트 파츠파츠 브랜드를 설립했다. 뉴 네오프렌(New Neoprene)이라는 단일 소재로 옷을



임선옥 파츠파츠 대표(오른쪽)가 제17회 코리아패션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파츠파츠

만들고 컬렉션이 구성되며 무봉제(Semless) 접착 방식을 통해 생산·제작 과정에서 버려진 패턴(PARTs) 조각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패션브랜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자동차기자協 "이달의 차 'BMW 뉴 X3'"

디자인·안전성·편의사양 고평가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4년 12월의 차에 BMW 뉴 X3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전원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기아 더뉴 스포티지, BMW 뉴 X3, 토요타 2025년형 캠리, 포드 더뉴 포드 익스플로러(브랜드명 가나다순)가 12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뉴 X3가 35.3점(50점 만점)을 얻어 12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BMW 뉴 X3는 내·외부 디자인 및



BMW 뉴 X3.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부문에서 각각 8.0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동력 성능 부문에서 7.0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4세대로 완전 변경을 거친 BMW 뉴 X3는 커진 차체와 고급스럽고 강렬한 디자인을 겸비하고 있으며, 최신 운영체제인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OS) 9을 적용해 진보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GRS, 하반기 ESG 평가 'AA'

2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 도넛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롯데GRS가 국내 대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하반기 ESG 평가

에서 'AA'를 받으며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GRS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92.53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공헌 및 지역상생 분야에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KB자산운용,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KB자산운용이 지난 2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주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B자산운용은 임직원이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사

◆MTNW투자자문 △대표이사 박기섭 △기획전략실장(이사대우) 이인한

◆한국지역난방공사 △1급승진 △경영관리처장 신현호 △사업개발처장 민정식 △통합운영처장 엄태선 △건설처장 정남성 △분당사업소장 김성수 △대구지사장 고희락

부음

▲박필남씨 별세, 김병록·병근·인순(장흥장평중 전 교장)·병로(광주시 기획조정실 주무관)·정희(민전 전 광주전남지부장·법무법인 라포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5일 오전,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 301호, 발인 7일. 062-227-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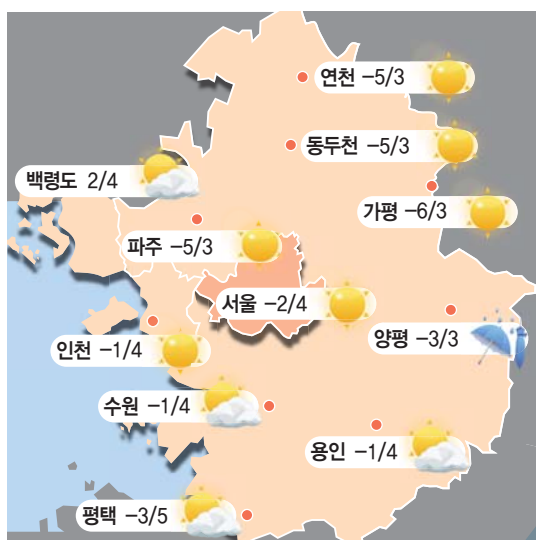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3 | 해질 / 17:13

12월 6일 (금)
음력 : 11월 6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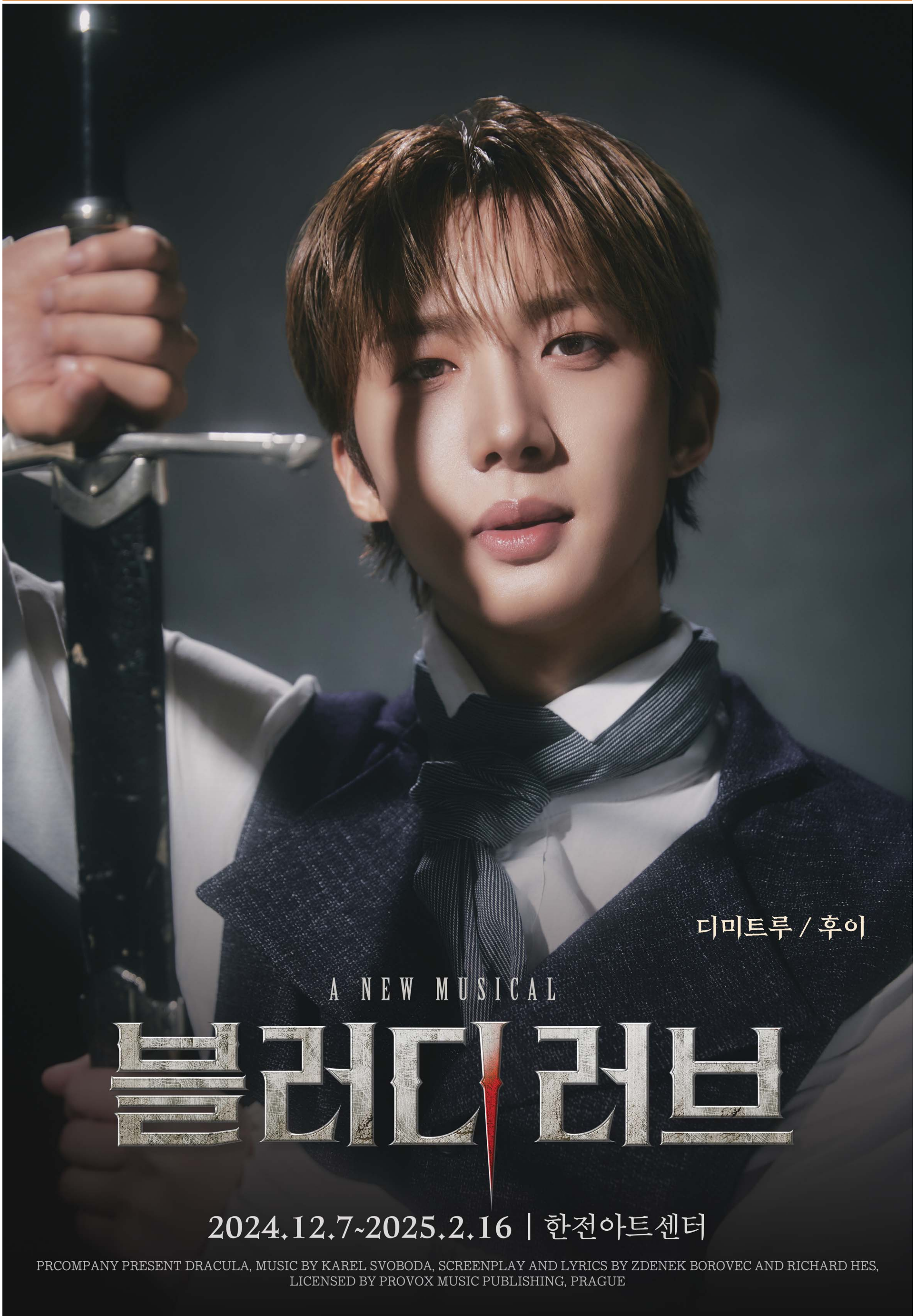
시몬스, '니눔문화 확산 유공 포상' 수상

시몬스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4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 포상'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쾌거다. 시몬스 이종성 부사장(왼쪽)이 김경희 이천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몬스



한신대, '한신다움 장학금' 전달

한신대학교는 지난 3일 경기캠퍼스 광공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한신다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디미트루 / 후이

A NEW MUSICAL

블러디 러브

2024.12.7~2025.2.16 | 한전아트센터

PRCOMPANY PRESENT DRACULA, MUSIC BY KAREL SVOBODA, SCREENPLAY AND LYRICS BY ZDENEK BOROVEC AND RICHARD HES, LICENSED BY PROVOX MUSIC PUBLISHING, PRAGUE

중소기업 M&A 지원과 인센티브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2022년 KOS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는 735만2787개로서 중소기업이 99.87%인 734만3521개이고, 나머지 0.13%는 대기업이 3966개, 중견기업이 5306개다. 2021년 중기벤처부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2286만5491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80.9%를 차지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19.1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분류기준에서 보면, 대기업은 보통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고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에서 5조원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지칭한다.

기업이 창업과 설립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내적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수합병(M&A)

은 기업 측면에서 보면 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외적 성장전략이자 투자전략이 된다.

M&A 관련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M&A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제일 크고, 다음이 중소기업 간 M&A이며, 대기업 간 M&A 성과가 가장 낮다. 이의 결과가 우리의 경제 현실에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의 사업기회가 결합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간 M&A는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규모경제 달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건 중소기업 간 M&A이다. 앞의 KOSIS 자료에서 보듯이 13만개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건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서 지원받고 있는 세제와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상실하는 데에 있다. 세제의 대표적인 예가 최저한 세율이다. 중소기업에는 7%의 최저한 세율이 부과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친 후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면 중견기업에서 3년간 8%, 그리고 4년차 및 5년차에 9%로 최저한 세율이 증가한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최저한 세율의 혜택 유지 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중소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난 6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혜택 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게는 2년을 추가하여 총 7년까지 중견기업 지정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런데, 상기 중소기업 유예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가 얼마나 늘어날까?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 수를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M&A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정책 마련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 간 M&A 정책자금지원과 함께 후속 지분투자 제공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유예조치를 10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M&A가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꾀함을 잊지 말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1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음주는 결정적으로 파탄을 가져온다. 48년생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긴다. 60년생 기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 72년생 자책하지 말라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84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모든 것은 문서로.



37년생 남에게 잘하는 것도 대접받을 일. 49년생 약간의 머구름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61년생 눈앞의 실속 챙기려다 큰 것을 놓친다. 73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85년생 배움에 타인의 시선에 얽매지 마라.



38년생 재나간 일에 관심 두지 마라. 50년생 뜻대로 되는 자식은 별로 없다. 62년생 지치고 힘든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을 받자. 74년생 희망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으니 열심히. 86년생 재혼한 배우자에게 불만을 내색하면 서로 불륜.



39년생 지치고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라. 51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다. 63년생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여야 한다. 75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날. 87년생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들다.



40년생 흐르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좋다. 52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64년생 태양은 항상 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76년생 사랑에는 병이 왔으나 곧 약도 주어진다. 88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41년생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 53년생 후배에게 하는 칭찬은 큰 성과로 돌아온다. 65년생 발등을 찍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인데. 77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조직에서 승진을 이룰 수 있다. 89년생 꿈으로 머리가 어지럽다.



42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준다. 54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66년생 평소 해놓은 공부로 창의력이 빛나는 날. 78년생 물이 깊어지고기도 많이 모이는 법이니 공부. 90년생 구두쇠는 구두쇠지 절약 정신이 아니다.



4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55년생 목표가 높아 보여도 용기를 내자. 67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라가 없다. 79년생 먼저 대접받기를 바라지 말고 대접을 하는 마음으로. 91년생 시시비비 가리다가 자신의 실수도 알려진다.



44년생 보이지 않는 헛된 희망이 사람을 지지게 한다. 56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68년생 사람을 믿는 것도 자신이다. 80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92년생 하던 일이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지는 오후이다.



45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를 기대하니 욕심이 과하다. 57년생 상큼한 소식이 친구를 통해 온다. 69년생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81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쏟아져 내리니 청약을. 93년생 산행에서 원숭이띠를 조심.



46년생 뜻밖의 선물이 들어온다. 58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한 휴식. 70년생 열정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하루. 82년생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이니 실력을 쌓으면서 기다려보라. 94년생 가족 간에 공과 사로 다툼 일이 생기는데.



47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조심. 59년생 모난 돌이 정맞으니 오늘을 지중. 71년생 어린 사람과 다툼이 생기니 주의. 83년생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95년생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뛰는 일을 찾아라.

비만보험과 도덕적 해이



김주형
김주형 (금융부)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7년 '비만에 대한 WHO 자문 보고서'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다. 2013년에는 미국의사협회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치료와 예방 등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식 인정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미적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저 개인의 식탐, 식욕이란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

해 비만 유병률은 남자 45.6%, 여자 27.8%다. 남자의 경우 2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성의 경우 20~30대의 비만 유병률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는 지난 2022년 18.2%에서 2023년 22.1%로 3.9%포인트(p) 늘었다. 30대는 21.8%에서 27.3%로 5.5%p나 증가했다. 보험업계가 비만 보험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최근엔 업계 최초로 위고비 등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를 보장하는 신담보가 출시됐고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신청도 마쳤다.

다만 보험의 고질병인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 문제가 비만에서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를 미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비만 치료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위고비, 삭센다 등은 '꿈의 치료제'로 불리면서 지난 10월 출시 이후 열풍을 넘어 오남용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비만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비만 치료제가 처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전면 제한하기도 했다.

비만 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부터 불식시켜야 한다. 보험금 지급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건을 까다롭게 선별해야 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에서도 아직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열풍을 넘어 광풍에 도달한 비만 치료제와 보험의 만남이 또 하나의 사회적 불신으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gh47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카타르시스

억눌려 있던 감정의 응어리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때가 있다. 흔히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문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눈물짓는 사람이 있다. 가볍게 눈물을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소리 내어 울기도 한다. 어디서도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속 털어놓으니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아오른다. 필자는 그 순간에 상담받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상황은 연극이나 영화 또는 그림이나 소설 등을 감상할 때다. 작품 속의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에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올라오고 마음에 있던 응어리나 슬픔이 해소된다. 이렇게 위로받고 감정이 정화되는 느낌이 카타르시스다. 순간에 많은 것들이 씻겨 나간다. 서러움 힘겨움 아픔 두려움 걱정 같은 쌓였던 감정이 녹아내린다.

명리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지금 자기를 즐겁게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을 꺼내놓으며 명리상담을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해방감에 숨겨놓았던 감정들과 함께 마음을 토로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위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는다. 사주와 운세 상담을 마치고 나서는 사람들이 편안한 얼굴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 당장 닦힌 어려운 일도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얻어간다. 마음을 괴롭히던 감정까지 털어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편해진다. 힘겨움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명리의 이치는 희망과 함께 인생을 무겁게 누르는 돌덩이를 털어내고 힘을 내게 해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7			2	4
9		5		4	2		3
						5	
	7		6				9
	3		4		1		9
6			7			3	
	4						
5			6	8		9	2
7	9			6		4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9	9	1	2	6	2
2	2	6	7	8	9	8	1
2	9	1	9	6	2	8	7
1	8	2	8	2	6	7	9
9	6	9	1	2	7	2	8
6	8	7	8	9	9	1	2
9	9	8	2	1	8	6	2
8	1	2	2	7	8	9	6
7	2	9	6	2	9	8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트쿠튀르’를 입은 와인... 伊 테누타 디 트리노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벤자민 프랑게티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테누타 디 트리노로’와 ‘파소피시아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2020년 빈티지는 카베르네 프랑 92%에 메를로 8%를 섞었다. 2021년 빈티지는 메를로의 비중이 60%로 더 높고, 카베르네 프랑은 나머지 40%다.

이 두 와인은 같은 와인일까, 다른 와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같은 와인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인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빈티지별 블렌딩 비율이다. 전설로 남은 안드레아 프란게티가 와인메이커로 이름을 알리게 된 그 와인이다.

비니 프란게티 그룹에서 와이너리 테누타 디 트리노로와 파소피시아로를 이끌고 있는 벤자민 프란게티는 최근 한

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의 와인은 매년 그 해의 땅과 기후의 개성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한다”며 “어떤 빈티지든 기분 좋은 긴장감에 구조감과 복합미를 가지고 있어 ‘아 이게 트리노로구나’라

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벤자민은 안드레아의 아들이다.

‘느낌적인 느낌’이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쉽게 옷 이야기로 풀어보자.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 샤넬 스타일의 옷을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매년 선보이는 프랑스 오트쿠튀르 컬렉션에서 디자이너가 바뀌어도, 어떤 원단과 컬러로든 고유 스타일로 샤넬은 샤넬임을 나타내듯, 세대가 바뀌고 숫자는 달라졌지만 트리노로 역시 트리노로였다.

지난 2021년 세상을 떠난 안드레아의 마지막 작품이 2020 빈티지다. 이번에 선보인 2021 빈티지는 아버지 없이 오롯이 아들의 손길만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테누타 디 트리노로가 만들어지는 포도밭을 봐야 한다. 토스카나 남부에서도 발도르차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안드레아가 근처를 여행하다 점토 토양을 보고 보르도 우안을 떠올리면서 와인 양조를 도전하게 됐다. 같

은 보르도 품종이라도 토스카나에서 많이 심던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니라 카베르네 프랑과 메를로를 섞었던 이유다. 3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방에 다른 와이너리라고 찾아볼 수 없다.

배우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직관과 감성에 공대 출신의 아들은 체계와 분석을 더했다.

20헥타르로 원래도 넓지 않은 포도밭을 벤자민은 50개의 작은 구획으로 나눴다. 독립된 구획은 철저히 각각의 컨디션에 맞춰 50번의 수확과 50번의 양조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50개의 와인을 가지고 테누타 디 트리노로의 이름에 맞는 블렌딩을 찾아간다. 테누타 디 트리노로에 쓰이는 구획은 보통 4~5곳, 많아야 6곳이다. 나머지는 세컨드 와인에 쓰인다.

그는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오트쿠튀르처럼 마련된 50개의 재료를 가지고 빈티지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드레스

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향점만 있고 정해진 레시피가 없기에 2020과 2021 처럼 블렌딩 비율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벤자민은 매 해를 와인에 잘 담아내는 숙련된 장인인 셈이다. 스타일이 아니라 빈티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포도가 잘 익은 해는 알콜 도수가 높을 수 있지만 개이치 않는다. 블렌딩 과정을 통해 균형을 찾기 때문에 어느 것도 뽀족하게 튀지 않는다.

실제 ‘테누타 디 트리노로 2021’은 레이블에 알콜 도수가 15.5%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균형감이 뛰어나다. 신선함과 산도가 모두 받쳐준 덕분이다.

벤자민은 “좋은 와인이란 바로 마시기도 좋아야 하고, 30년간 숙성 잠재력도 있어야 한다”며 “2021 빈티지는 힘도 있지만 속에 신선함을 감추고 있어 마시기도 편하다”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군국화 가속... ‘사쿠라’ 의미 변질

‘주제’는 철학자 강유원의 서평을 ‘책과 교양’, ‘역사’, ‘군대’, ‘과시즘’, ‘전쟁’, ‘한국과 동아시아’라는 6개 주제로 묶어 펴낸 책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은 ‘상징의 정치화, 정치의 심미화’를 다룬 부분이다. 일제 군부가 ‘사쿠라(벚꽃)’에 대한 이미지를 조작해 ‘가미카제(전쟁 때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군 특공대)’를 양산해낸 과정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는데, 지배 계층의 음침함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책에 따르면, 사쿠라는 군부에 의해 전사를 미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 변용되기 시작했다. 확 피었다가 지는 벚꽃처럼 젊은 이들이 천황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면, 천황이 참배 ‘해주시는’ 야스쿠니 신사의 사쿠라로 환생한다고 약속한 것. 원래 야스쿠니 신사의 벚나무는 그 꽃의 아름다움으로 유신 때 목숨을 잃은 막부 타도파 지식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심었던 것이나, 군국화가 가속되면서 정부에 의해 상징적 의미가 변질됐다고 책은 설명한다.

사쿠라의 의미 변용 과정에는 미화 혹은 미적 가치의 부가라는 수단이 사용됐으며 교과서, 창가, 유행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력은 교육을 통해 정치화된 상징을 보급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의 토대인 권력 관계를 은폐한 채 의미를 새겨 넣었으며, 거기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했다.

벚꽃은 점차 ‘천황(=국가)을 위한 희생’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흐드러지게 폈다 지는 사쿠라의 아름다운 젊은이들의 죽음과 동일시됐고 이는 특



주제

강유원 지음/뿌리와이파리

공 작전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책은 벚꽃의 상징적 의미에는 상징적 오인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본래 사쿠라는 삶과 환생, 둘 다를 상징했고 특공대원 역시 이러한 의미장 속에서 벚꽃을 이해했다. 그러나 군부는 사쿠라에 의한 상징적 표상의 균형을 변화시켜 죽음을 전면에 내세웠다. 군부에게 벚꽃은 ‘천황을 위한 죽음’을, 특공대원에게 사쿠라는 ‘환생’을 의미했다.

저자는 “상징 기호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서는 반드시 오인이 일어난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의 의미는 천차만별일 것이나 사회과학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상징 기호들은 로 맨틱한 열정에 호소할 뿐 ‘지금 여기, 나’의 구체적 삶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284쪽. 1만2000원.

/김현정 기자 hi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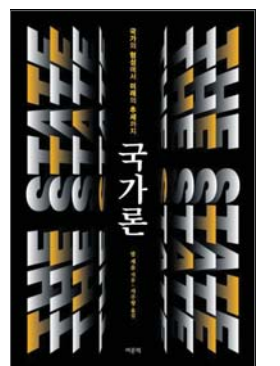
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는 사물인가, 주체인가, 사회적 관계인가, 아니면 정치적 행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구성물인가. 또 국가는 영토적·시간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제도적·의사 결정적·작동적 자율성을 지녔는가, 주권 혹은 자율성의 원천과 한계는 무엇인가. 국가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국

가에 대한 경제·도구·기능주의적 신화를 해체하고, 국가의 형태, 국가가 속한 사회적 관계, 국가를 둘러싼 전략적 실천에 초점을 맞춰 마르크스의 국가론을 재구성한다. 저자는 이러한 전략 관계적 접근법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란 지배적 전략이 그 형태를 규정하는 사회관계임을 밝힌다.

544쪽. 3만3000원.

밥 제습 지음/지주형 옮김/여문책



세계 감염 예고

책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까발려진 관료제의 한계와 제도적 비효율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르포르타주다. 저자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것을 직감한 예견자들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혈투는 인간성과 사회 시스템,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면전이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이러스의 동향을 예측하고, 신속한 검사법

을 개발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냈다. 그들은 미국 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무능에도 의지를 잃지 않았으며, 경직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팬데믹 사태를 막아낸 건 거대한 기관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한 이들의 신념과 결단이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384쪽. 2만4000원.

마이클 루이스 지음/공민희 옮김/다섯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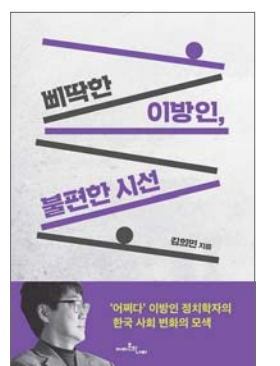
빼막한 이방인, 불편한 시선

‘빼막한 이방인, 불편한 시선’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인생의 3분의 2를 이방인으로 산 정치학자 김희민의 에세이를 묶은 책으로,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리더와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자는 “정치를 생활과 분리된 영역으로 여기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치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채 무능

한 정치를 타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시민 스스로 정치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2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종교, 남북관계, 존엄사라는 주제를 예리한 통찰로 분석한다. 3부에선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경험한 일상들을 일기와 낙서 형식으로 재기 발랄하게 그려낸다.

248쪽. 1만7000원.

김희민 지음/아마존의나비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계엄령, 北 이롭게 하고 東亞안보 약 영향... 주변국 도발 우려” 日언론 /사진 뉴시스
▲“한국 돈 안받아요”... 태극서 원화 환전 거부 ‘계엄 후폭풍’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 돌파
▲국제엠네스티 “가자지구서 집단학살 확인” 보고서.. 이스라엘은 반박



▲유엔, 아프간 탈레반정부에 여성교육과 의료훈련 금지 재고 권고
▲美, 중국 수출금지 안티몬 20년 만에 재출 허가 /사진 뉴시스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를 '몰리데이' 어때요? 니



Life

셀트리온 송도3공장 본격 가동 L2



합성첨가물 빼고 무지방 생우유가 '썩' 부드러운 커피 새장 열다

메가이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남양유업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남양유업의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는 2010년 출시 이후 약 12년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

특히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는 프림의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다. 유제품 전문업체라는 강점을 살려 프림에 우유맛을 내는 식품첨가제 '카제인 나트륨'을 빼고 무지방 생우유를 넣어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했다.

남양유업은 당시 무지방 우유를 넣어 프림을 만드는 기술 개발이 쉽지 않았고 생산원가도 많이 들었지만, 제품 차별화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는 출시 3개월만에 100억 원을 매출을 올리며 입소문을 탔다.

후발 주자인 프렌치카페 커피믹스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 안착한 데는 스타 마케팅의 힘도 컸다. 당시 배우 김태희와 강동원을 제품 포장과 광고에 대대적으로 내세운 결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지도와 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뉴얼 된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를 활용해 만든 '모카번'.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는 스페셜티 커피협회(SCA)에서 인정한 커피전문가 '큐그레이더(Q-grade r)'가 선별한 1년 이내 수확된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다.

원두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저온 로스팅 공법을 통해 맛과 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특수 설계된 2가지 추출방식 '듀얼 프레스(Dual-Presso)' 추출 공법을 통해 밸런스를 잡는다. 이렇게 추출된 원두의 아로마(향)를 분리하여 향을 구현하고, 질소 충전 포장을 통해 신선함을 잡았다.

특히 프림 속 첨가물 카제인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은 특허(특허등록번호: 10-1208996) 받은 공법은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만의 맛의 비결이다.

2022년 남양유업은 리뉴얼을 통해 당 함량을 조정하고,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하며 '건강한 커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했다.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는 마일드, 오리지널, 블랙 등 선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다.

당 걱정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커피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카페를 즐기는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믹스 커피를 대신해 아메리카노나 라떼 등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지만, 믹스 커피의 '달달한 맛'을 여전히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다만, 믹스 커피를 오랜 시간 마셔온 세대는 당에 대한 부담을 더욱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당류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달달한 믹스 커피를 출시했다.

지난해 10월 남양유업에서 출시한 '프렌치카페 스테비아'는 기존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에 비해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고 당류를 제로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당류나 콜레스테롤이 없어 '제로 슈거' 제품에 많이 활용하는 천연감미료 스테비아를 설탕 대신 넣었기 때문이다.

설탕을 빼면 믹스 커피 맛이 연해질 것이란 일부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스테비아는 당류는 '제로'인 동시에 설탕의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비아 커피로 기존 프렌치카페 믹스 커피가 가진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제품 라인과 동일하게 특수 설계한 2가지 추출방식의 '듀얼 프레스(Dual-Presso)' 추출 공법을 사용했다.

남양유업은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근 베이킹 전문 크리에이터 '소니'와 협업한 홈베이킹 동영상 콘텐츠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겨울 철 따뜻한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 '모카번'을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를 활용해 만드는 방법을 담았다. 약 40초 분량의 영상은 커피 에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만으로 깊고 진한 커피향의 모카번을 완성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크리에이터 '소니'는 7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기 인스타그램 베이킹 전문가로,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홈베이킹 영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지방 생우유' 넣어 프림의 차별화 큐그레이더 선별 고품질 원두 사용해 저온 로스팅 공법으로 맛·향 끌어올려

당류 걱정없이 마시는 믹스커피 선택 베이킹 전문 크리에이터 '소니'와 협업 카페믹스 활용한 디저트 공개하기도

남양유업은 이번 콘텐츠 공개를 기념해 12월 1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콘텐츠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00입을 증정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2024년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 우유(맛있는우유GT), 분유(아이엠마더), 발효유(불가리스), 가공유(초코에몽), 차(17차), 단백질(테이크핏) 등을 주력 제품으로 시장 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뇌전증 및 선천성 대사질환 환자를 위한 특수분유 생산 보급 활동을 이어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변경 이후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준법·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주주와 회사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데 주력한 결과, 고강도 책임경영의 성과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분기 만에 모두 흑자전환을 이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오노 모리에 회고록·안중근 관련 사진...추정가 10억 /사진 뉴시스
▲서울시향,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연주...콘래드 타오 첫 협연

▲'내년 계약 만료' 손흥민, 바르셀로나 이어 맨유 이적설
▲LPGA, '트랜스젠더' 출전 지침 개정... "12세 이후 성전환 선수 출전 불가"



▲부키리치·메가 '막강 쌍포' 활약...정관장, 상위권 맹추격 나신다 /사진 뉴시스
▲김광현·양의지·박해민·장성우...2025시즌 '새 캡틴' 중책